

깡패 대국으로 가는 길

김영우/SBS라디오 방송국 PD

5월 들어서 유엔에서는 작은 이변이 두 번 일어났다. 다름아닌 세계 최강국 미국이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 선거에서 지고, 얼마 있지 않아 마약통제위원회 위원국 선거에서도 진 것이다. 유엔의 인권위원회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리너 여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니 미국이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쫓겨난 셈인데 미국은 이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미국이 떨어진 원인을 놓고 일부에서는 음모론이나 미국의 무성의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모습이 다른 국가들에게 반감을 사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교토 기후변화협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행하려 하는가 하면 국제형사법정 설립조약 비준을 거부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팔레스타인 사람 보호를 위한 유엔결의에도 반대를 했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아니꼽게 보였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유엔 인권위원회 탈락에 대한 반응이다.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계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에 유엔 분담금 지급을 유예하겠다고 의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다. 미국이 이번 일에 자존심이 엄

청 상한 것은 이해할 일이나 미국이 이번 일에 대한 반응은 유치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다. 현재 미국은 유엔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와 함께 미국은 분담금 체불금액이 제일 많고 체불횟수도 가장 많다.

분담금 비율을 일방적으로 낮추기도 하고 이제는 아예 못 내겠다고 하더니 미국은 정말 강국 이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울러서 더럽고 치사해서 못살겠다는 생각도 든다. 미국이 유엔에 돈 많이 내서 유엔 내에서 가진 힘이 얼마나 큰가 말이다. 그리고 유엔의 이름을 빌려서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은 간섭을 하는지 생각해 보라. 힘없고 약한 나라들이 미국에 거슬릴 때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제재를 가하는가 말이다. 미국이 그런데도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고 강짜를 부리는 것은 대국다운 모습이 아니다.

미국은 이른바 깡패국가라고 해서 몇몇 나라를 정해 놓고 이들 나라와 거래하는 나라나 기업에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명분은 이들 나라가 다른 나라 자국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체면도 던져 버리고 말이다.

미국이 유엔 인권위원회와 관련해 보여준 것처럼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유치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북한에게 붙여준 깡패국가란 이름은 미국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북한이 작은 깡패라면 미국은 큰깡패일 뿐이다. **김영우**

